

## 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3. 9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피크시간 기업 전기료 2배 오른다”<sup>(’13.9.1, 매일경제)</sup>

### 1. 기사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월 요금 개편 때 피크시간대(오전 11~12시, 오후 1~5시)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다.
- 올 여름철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(CPP)를 상시 운영하고, 현재 3배 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 차이를 확대한다“며, “확대폭이 두 자릿수를 넘지않을 것”
  -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 때 요금과 심야시간 등 경부하 때 요금 차이가 종전 3.4배에서 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피크타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현재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,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‘선택형 요금제\*’를 검토 중임
  - \* (예) ’13년 동계(1~2월), 하계(7~8월) 중 시행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(CPP)는 피크일(각 10일)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기본적인 요금 수준보다 3~4배 할증하고,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로 설계
- 다만, “현재 3배 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차이를 확대한다” 또는 “확대폭이 두 자릿수를 넘지않을 것”이라는 내용을 산업용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검토된 바 없음
- 따라서, 모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이가 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, 피크타임 때 최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(02-2110-4660), 정보경 사무관(02-2110-4662)